

2차 지부 총파업! 이번엔 일진본사로!



2019 임단투 난항!

2019년 임단투가 심상치 않다. 벌써 8월 중순인데도 중앙교섭, 지부교섭, 사업장 보충교섭까지 해결의 기미가 안보인다. 아직까지 임금동결을 고수하는 사업장도 있다. 자본은 교섭 시작부터 제조업 위기를 운운했고, 최저임금이 20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인상되자 임금동결의 의지를 더 불태우고 있다. 자본은 지부교섭 요구안인 고용안정 요구에도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 위기를 핑계로 구조조정을 시도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려움없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자본은 고용안정을 약속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교섭, 지부교섭 타결 없이는 지회 교섭 타결도 없다. 20일 중앙교섭, 22일 지부교섭 결과에 따라 임단투의 향방이 갈린다.

일진그룹, 성실교섭이냐? 노조파괴냐?

일진다이아몬드지회 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일진 자본은 8월 12일(월) 14시부터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오늘로 전면파업 55일차, 직장폐쇄 8일차를 맞고 있다. 오늘부터는 주3회 집중적인 실무교섭을 열기로 노사 합의했다. 일진 자본은 노조파괴의 야욕을 버리고

성실하게 실무교섭에 임할지, 끝까지 노조파괴를 시도할지 선택해야 한다. 어렵게 열린 실무교섭이 진짜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인지, 보여주기용 쇼가 될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그 선택에 따라 일진자본이 맞이하게 될 투쟁이 달라질 것이다. 일진다이아몬드지회의 투쟁은 지부 전체의 투쟁으로 전개되고 있고, 금속노조 중앙의 투쟁으로까지 커졌다. 일진그룹이 노조파괴의 꿈을 버리지 못하면, 18만 금속노조의 투쟁을 맞닥뜨릴 것이다.

8월 21일, 일진그룹 본사로!

지부는 7월 18일 1차 지부 총파업을 일진다이아몬드 음성공장에서 진행했다. 그리고 8월 21일 2차 지부 총파업은 일진그룹 본사로 간다. 지부는 7월 3일부터 벌써 5차례에 걸쳐서 일진그룹 본사 상경집회를 개최했다. 지회는 8월 8일부터 본사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지금의 노조파괴가 일진그룹 본사 차원에서 기획되고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진그룹이 헛된 꿈을 버리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오도록 압박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지부 2차 파업을 통해 노조파괴를 시도하는 자본에게는 강력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한다.